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전시회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독일정부의 하노버 메세운영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김진숙^{1*}

¹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For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on the utilization of foreign Messe

-Hannover Messe of Germany, the government operations in case analysis Hannover Messe-

Jin Suk Kim^{1*}

¹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요 약 본 성공적인 국제기술협력을 위해서 정부는 많은 대안을 통해서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전시회를 통해서 국제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이 2009년도 동반 국가 “한국의 해”를 통해서 국제기술협력 활성화 정책을 실행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우리정부에 시사점을 찾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을 위해서 연구자가 직접 2009년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독일 하노버 메세를 방문, 관계자들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총 5장으로 되어있다. 제 2장에서는 독일하노버 메세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고 제 3장에서는 문화적 갭을 줄일 수 있는 메세에서의 동반국가 “2009년도 “한국의 해”를 통해서 사례분석을 도출 하였다. 제 4장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메세와 국제기술협력 성과를 살펴보았고 제 5장에서 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For a successful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through the government has tried many alternatives. However,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exhibitions Activation did not occur yet in our country. In this paper, accompanied by the Germans in 2009 states "Year of Korea" through the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to enable the policy to run the case study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to find us through the aims of the study. For this paper, the researchers direct 20 to 30 April 2009 Hannover Messe, Germany Visit, official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officials. This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is the total. Chapter 2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for Hannover Messe and Chapter 3 of 2009 "Year of Korea" was through a case study. Chapter 4 Messe Hannover, Germany, examined through the results and outcomes Section 5, we derive policy implications.

Key Words : German Companies,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Messe. Hanover Messe.

1. 서론

국제기술협력이라고 함은 일국을 넘어서 여러 기관, 연구소 및 기업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형성된 일시적인 조직이다[2,3]. 성공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정부에서는 시도되고 있다[7-10].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국제공동연구사업, 국제공동 기술개발사업, 국제화기반조성사업, 동북아 R&D 허브기반 구축사업,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그리고 연구기획평가관리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20,11,12]. 특히 국제기술협력을 직접 참여하는 산업체, 기관 등 실무진에게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다[5,6].

*교신저자 : 김진숙(mktskim@nsu.ac.kr)

접수일 11년 03월 29

수정일 (1차 11년 04월 27일, 2차 11년 06월 03일)

게재확정일 11년 06월 09일

그 중 한국과 독일 간 국제기술협력을 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독일 및 한국 파트너 국가에 대한 문화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4]. 이에 독일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메세를 활용하여 매년 특정 국가를 선정 그 국가에 대한 기술 및 문화를 함께 소개하면서 양국 파트너 들이 보다 쉽게 상호 이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메세활용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제기술협력이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 가시적인 결과를 보도록 하고 더 나아가 한국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가 직접 2009년 4월 21일에서 30일까지 독일하노버 메세를 방문하였다. 10일 동안 주요행사를 참석을 통해서 국제기술협력 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전문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연구되었다. 2장에서는 독일 하노버 메세에 대한 특징 및 개요 그리고 국제기술협력에 관한 기존연구를 알아보고 제 3장에서는 독일정부의 하노버 메세를 통한 국제기술협력 방안을 사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 제 4장에서는 하노버 메세 활용을 통한 국제기술협력의 성과 및 그 결과를 알아보았으며 끝으로 제 5장에서는 우리정부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독일 하노버 메세와 국제기술협력 기존연구

2.1 하노버 메세의 특징 및 개요

독일에서 메세는 판매, 전시도구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적 방향설정을 위한 정보탐색 및 컨택을 하는 형태이다[1][28][19]. 또한 국내기업들이 국내비즈니스에서 해외메세를 통해서 세계적인 시장경향, 제품 혁신성 그리고 기술적 변화에 대한 정보수집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 정부의 해외 메세 지원 및 참여 현황 및 선정을 위해 독일은 AUMA (Ausstellungs und Messeausschuss der Deutschen Wirtschaft e.V)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룬다[13].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국제적 또는 EU권을 넘어서 해외메세 1,200개 중에서 정부가 공식적인 해외 메세프로그램을 통하여 200-240개 정도의 전시회에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1,13]. 해외 메세 참여에 대한 기업들이 가지는 의미로는 메세를 통해서 획득한 주문과 메세 참여를 통해서 형성된 후속비즈니스는 메세 참여기업의 해외수출매출액의 약 25%를 형성한다고 한다[1,14,19].

독일 정부의 해외메세 지원기업체 선정방법은 기업체들을 위해서는 경쟁포지션과 경쟁력강화 및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를 보장을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해외시장 진입에서 아주 우수한 기능이다 [1,19].

신생 혁신적인 기업을 위한 독일정부의 메세 프로그램으로는 BMWi(Bundesministerium fuer Wirtschaft und Technologie)독일연방경제기술부는 독일기업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적인 주요메세에 대한 참여를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해주고 있다[13,14,16].

이러한 지원기업선정 판단기준으로는 제품 및 제조(생산)프로세스에서의 혁신적인 개발을 기하는 기업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컴퍼넌트 포함), 제품 및 제조(생산, 공정)프로세스, 및 서비스 또는 그들의 시장도입과정에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다 [17,18,21,27].

2.2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메세활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제기술협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는 크게 아래 몇 가지 이론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졌다:

Ritter(1998)는 기계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독일기업들이 독일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제기술협력을 하는데 있어서의 네트워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25]. 이 연구에 활용된 이론은 네트워크이론이다. Heftrich(2000)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히, 기술협력을 위한 동기를 연구하였다. 특별한 이론을 다루지 않고 실증분석을 위주로 연구되었다[17]. School(2006)과 Chiesa/ Rolett(2004)/ Müller(2003)는 자원기반이론과 거래비용이론에 토대를 두었으며, 기술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 및 영향요인을 분석 하였다[15,23,26].

여기에서 다른 국가들은 독일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로 이루어져있다. 김진숙(2010)은 한국과 독일간의 국제기술협력 장애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게임이론에 토대를 두었다[3].

Smpson(2007)는 특정 국가를 두지 않고 다국적기업들의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연구로서 협력파트너와 조직간의 관계를 정보경제학이론에 토대를 두고 연구되었다 [27]. HagenHagenoom/Roijakkers/Van Krannenbur(2006)는 미국기업과 타 국가 기업들 간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기업의 네트워크 능력을 살펴보았으며 이론적 토대는 네트워크 이론에 토대를 두었다(참조 표 1)[18,22].

이처럼 국제기술협력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기술협력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연

구되어왔지만 경영학적으로 많이 다루는 혁신이론은 국제기술협력 분석을 위해서 기업과 연관된 환경에서의 혁신과업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 접근방법의 장점은 혁신프로세스의 기술 및 내용적인 특성과 다른 기업과의 기능분야 및 -전략과의 상호영향에 대한 특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기존연구
[Table 1] The research on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연구자	산업분야	연구대상 국가	연구목적	이론
김진숙 (2010)	특정 없음	한국과 독일	국제기술협력 장애요인	게임이론
Smpson (2007)	통신업체	한정된 국가 없음	협력파트너와 조직 간의 관계	정보경제학 이론
Hagenoom/Roijackers/Van Krammenbur (2006)	화학산업	미국과 타 국가	전략적 협력을 위한 기업네트워크 능력	혁신이론
Scholl (2006)	특정산업업	독일과 미국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성공조건 분석	거래비용이론 및 혁신이론
Chiesa/Roletti (2004)	바이오 기술	전세계 대상	상이한 국제기술협력 유형 분석	혁신이론
Müller (2003)	바이오 기술	독일기업과 전 세계 대상	기술협력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조직이론 및 거래비용이론
Miotti/Sachwald (2003)	기계 산업	프랑스와 유럽전역 대상	기술협력 목적	거래비용이론
Heftrich (2000)	자동차 산업	전 세계 대상	기술협력을 위한 동기	실증분석 위주
Ritter (1998)	기계 산업	독일과 전 세계 대상	네트워크 능력	혁신이론

경제학적 조직이론 및 거래비용이론 등은 국제기술협력을 기업 개별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협력도구에 중심을 두고 출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국제기술협력은 조직이론에 의하면 경제행동의 실행을 위한 가능한 조직유형으로서 이해되었다.

지금까지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메세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사례분석: 동반국가 행사를 통한 국제기술협력

3.1 동반개최국 행사개요

하노버 메세에서 동반국가를 선정, 국제기술협력을 실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 이다. 2006년 인도의 해, 2007년도 터키의 해 그리고 2008년도 일본의 해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행사내용은 그림 1에서와 같다(참고 표 2).

[표 2] 최근 동반개최국 행사개요
[Table 2] Overview of recent events associated partner nations

	'06 인도	'07 터키	'08 일본
기간	'06. 4. 24 ~ 28.	'07. 4. 16 ~ 20.	'08. 4. 21 ~ 25.
박람회 참가국 수	66국 5,175개사	65국 6,150개사	59국 5045개사
참가규모 (업체 수면적)	320개 업체 (13,050m ²)	289개 업체 (9,852m ²)	150개 업체 (3,695m ²)
관람객	148천명	241천명	200천명
슬로건	Innovative, Ingenious, India	Catch the future with Turkey	Cooperation through Innovation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부문 - Hall 6내 국가관 설치 · 테마파빌리온 및 기업부스라운지/미팅룸등으로 구성 ○ 이벤트 부문 - 공식행사: 인도관 개막식, 인도-독일정상회담 - 세미나: 인도 기계산업과 독일 경제 - 포럼: 인도-독일 Business Summit, 인도-독일 기술협력에 관한포럼 등 - 부대행사: 인도의 전통문화 공연(페션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부문 - 별도의 국가관을 마련하지 않음 (별도 기획전시 공간 없음) · 각 테마 전시관 별로 관련업체 전시 ○ 이벤트 부문 - 공식행사: 터키관 개관식 - 세미나: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개최(일일 평균 5개) - 포럼: 인도-독일 Business Summit, 터기독일 학생 토론 - 부대행사: 터기 출신 유명 피아니스트의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부문 - 국가관에는 로봇기술과 일본의 현대디자인을 주제로 전시 * 인도, 터키와 달리 소규모 국가관 -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 각 테마 전시관 별로 관련업체 전시 ○ 이벤트부문 - 공식행사: 일본관 개관식 - 공연: Awa Odori 등 2개 행사(문화행사 별도) * 자체체 주관 공연 및 시내 문화행사 추진 - 부대행사: 비즈니스씨미트 의외 5개 행사

3.2 2009년 한국의 해 “를 통한 한독간의 국제기술협력

타 국가와의 행사에 비해 2009년도 한국 동반 국가 행사의 특징은 여러 분야에서 특히 제 4분과에서 여러 가지의 기술협력세미나(FTA등), 정치외교 관련 행사가 동시

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행사에서의 슬로건은 “MAKE IT WORK”는 ‘IT Machinery를 통한 새로운 기술과 혁신 창조!’로서 에너지·자동차 분야에서의 IT와 융합(Integrated Technology)된 산업육성 및 원천기술과 혁신기술(Innovation Technology)을 표현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이 동반국가(Partner Country)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전달 중심역할을 하는 국가 홍보관 운영과, 경제기업의 제품전시를 하는 기업전시관 이외에,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을 소개하고 산업협력 및 투자유치, 문화행사 등 다양한 테마를 통해 한국의 첨단기술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참고 표 3).

동반국 참가추진 과정 및 관련부처, 경제/문화계, 연구소/업계 등이 공동 참여하는 범국가적 추진체계(조직위) 구성되었다.

행사분야별 실질적 기획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분과 주관기관 중심으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분과위(5~7기관) 구성·운영하였다.

[표 3] 동반국가 행사의 개요

[Table 3] Overview of national events by exhibition

메세 기간	'09. 4. 20 ~ 24.
참가국 및 기업체	약 70국 6500개사
참여업체	약 200개 업체 (10,000m ²)
방문객 수	260천명
슬로건	“MAKE IT WORK”
전시부문	- 국가관, 기업 제품전시관으로 구성 - 12개 분야중 5-6개 분야에 국내제품 및 기술 집중 전시
이벤트 부문	- 공식행사 : 한국관 개막식, 한국-독일 정상회담 등 - 세미나 : 기술협력세미나(FTA등), 정치 외교관련 - 부대행사 : 한국의 역동성과 감동을 선사

각분과 행사 지원, 박람회 측 협의, 예산집행 등의 총괄 역할은 1분과위에서 담당하였다. 전문성이 필요한 국가홍보관/제품전시장 설치 등은 전문 시행사(제일기획 既 선정)를 통해 운용되었다. 시행사 업무 범위 : 국가홍보관 설치·운영, 기업전시관 설치, 전시장 內 부대행사(문화공연, 이벤트 등), 국내의 홍보하였다.

3.3 분과별 활동

분과 2: 국가홍보관

국가홍보관에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도록 로봇, 자동차, 나노기술, 플랜트, 조선 등 10개 테마로 구성됨. 먼저, 로봇관에는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인간과 비슷한 피부와 다양한 표정, 제스처를 하는 인간형 로봇 ‘에버(EveR)’의 판소리 공연과 인간과 같이 걷기, 춤 등이 자연스러운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가 대한민국의 로봇기술을 선보였다. 이 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자력플랜트, 담수플랜트 및 고부가가치 첨단선박의 모형이 전시되었으며, 친환경자동차, 신재생 및 고효율 에너지 기술인 솔라모듈과 연료전지, 홈네트워크 제어시스템, 무인운전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산업기술과 잠재력을 표현하여 한국의 강점이 집중 홍보되었다.

분과 3: 문화 예술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로는 하노버 시내에서 현대미술, 디자인, 사진 등의 전시개최와, ‘밀양’을 포함한 한국영화 9편이 상영되고, 하노버 시립도서관에서는 한국의 출판역사 & 현대 어린이도서가 전시되었다.

이밖에 독일 어린이들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한국소개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는 율놀이 보드게임, 아케이드 게임 등 교육키트가 하노버주변 초등학교나 교육시설에 제공되었다.

분과 4 : 경제 산업 기술

경제·산업협력 및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한-EU FTA 활용방안,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협력방안 등의 의제로 “한·독 비즈니스 서밋”이 개막식에 이어 진행되었으며, 녹색성장, 산학연 클러스터 등 한·독 양국 간 연구기관의 기술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와, 한국의 투자환경 및 정책, 지자체 소개를 통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전시기간 중에 진행되었다. 기술로는 신재생·발전 에너지, 로봇, 마이크로기술, 부품·소재 등 13개 분야에서 181개사(365부스, 약 4,400m², 국가홍보관 제외)가 참가하여 풍력발전기, 지능형 서비스로봇, 바이오센서용 나노칩, 초음파모터, 근접센서 등을 선보였다.

분과 5: 기술협력분과

한·독 양국 간 국제기술협력에 관련된 기획, 분야선정, 로드맵구축, 분야별 전문기관 간 협력, 세부 협력과제 도

출에 이르는 유기적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기획 및 전략적 분야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었다. 한독 과학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협력 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한독 공동 R&D 및 기술협력 로드맵 심포지엄 및 양국의 산업·과학 기술협력 양국의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한)지경·교과부 - (독)BMBF간 국장급 위원회 회의로서는 양국 정부의 기술정책 현황 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EU 연구 공동체 공동참여를 위한 지원 사업은 주요 분야 정부 및 기관 간 협력을 위한 MOU 체결되었다. 산학연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제반 협력 안전 등이 다루어졌다. 녹색성장, 공동 R&D 추진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분야로 집중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녹색성장”분야는 독일이 많은 경험을 가진 분야로서 신재생 에너지, 클린 생산공정 등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독일은 특히 그린기술 시장점유율 세계1위(19%), 유럽특허청 환경기술 특허수 1위(독일 23%, 미국 22%, 일본 19%)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보유하였다. 전통적 생산 및 기계기술 강국으로서 로봇 및 소재부품 등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국제기술협력분과 행사 일정 및 활동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참고, 그림 3: <기술협력분과 행사개최 일정>).

그 밖에 여러분야에서 한·독 공동 R&D 및 기술협력로드맵 심포지엄 개최되었다.

4. 메세를 통한 국제기술협력 결과

한·독 양국 정부 고위관계자 Angela Merkel 과 국무총리 및 차관, 국장 등이 메세를 참석하였다. 하노버 메세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자유스럽게 소개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줄여줌으로 해서 양국 간의 기술협력 파트너들은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우선 한·독 연구소 및 대중소기업간 공동 연구개발과제 도출이 추진되었다. 공동 R&D, 협력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동 R&D, 협력프로그램 등이 발굴되었다. 양국 기관별 MOU 체결(15건)이 되었으며 별도의 MOU 공동체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한·독 간 R&D 협력 강화를 통한 녹색성장 추진동력 마련 기회로 공동 R&D추진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분야로 집중기로 하는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참고 표 4).

“녹색성장”분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클린 생산공정 분야에서 양국간 여러 파트너들이 서로 미팅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표 4] 기술협력분과 행사 개최일정

[Table 4] Section for Technical Cooperation Division events

구분	관련행사	주관(협력)기관	비고
4/21 (화)	2차 한독과학산업 기술협력위원회	-韓지경부, 교과부, KICOS, 산기재단 -獨 BMBF	-개최장소(하노버 또는 베를린) 확정 협의중 - 주제, 안전 등 협의 완료 일정, 주제, 안전 등 협의 진행중
4/22 (수)	한독 공동 R&D 및 기술협력 로드맵 심포지움	-韓 산기재단, KIST Europe -獨 BDI	-독일측 유관기관(BDI, BMBF등) 참가확정 - KOTEF-VDI, IZT간 MOU 체결 예정
	한독신재생 에너지 심포지움	-韓 에기연 獨울리히연구소, 등	-울리히연구소간 MOU체결 예정 - 한국측 발표자 선정 완료, 독일측 발표자 후보 추천 완료
	한독 지속가능 생산기술 세미나	-韓 생기원 -獨 Fraunhofer IPA	-Fraunhofer IPA간 MOU체결 예정 -독일측 유관기관 참가 및 주제, 안전 등 확정
	IT 융합 첨단 생산기술 세미나	-韓 생기원 -獨주조기술연구소	-독일측 유관기관 참가 및 주제, 안전 등 확정
	부품 소재 세미나	-韓 생기원 -獨Fraunhofer IST 등	-MOU체결 예정 (생기원 - Fraunhofer IST, INM 연구소)
	나노 기술 포럼	-韓 기계연, 나노조합 -獨 IVAM	-MOU체결 예정(기계연 - IMITEK, Fraunhofer IST, Fraunhofer DFK)
4/23 (목)	마이크로 기술 포럼	-韓 기계연, 나노조합 -獨 IVAM	-MOU체결 예정(기계연 - IVAM, Fraunhofer IPT)
	한·독 마이크로시스템 상용화 기술 세미나	-韓 생기원, 나노조합 -獨 IVAM	-MOU체결 예정(생기원 - IVAM)
	한독 서비스 로봇 워크샵	-韓 KIST, ETRI -獨 항공우주센터 (DLR) 등	- DLR과 MOU체결 논의중 - 韓獨강연자 최종 정리 및 일정 조정 중
	한독 지능형 로봇 워크샵	-韓 생기원 -獨Fraunhofer IPA	-Fraunhofer IPA간 MOU체결 예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활동으로 이루어진 4월 22일 독일 하노버 메세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과 IVAM(Fachverband fuer Mikrotechnik)(마이크로기술 전문협회)이 기술협력협정을 체결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양 국가가 이 분야에서 정보교환을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양국 간의 협정을 통해서 독일기업들은 아시아시장 진입을 위해서(특히 중국) 좋은 가교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IVAM 협회의 기관회원들은 한국시장에 중점을 두고

잘 만들어지는 제품을 시장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r. Uwe Kleinkes, 독일 IVAM 사무총장, 2009년 4월 25일 인터뷰에 의하면: “양국이 윈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독일의 IVAM 회원들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한국시장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안목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독일교육과학부(BMBF), VDI, IZT 등 참여하여 여러분야에서 MOU 체결 등의 구체적인 성과 마련되었다. 독일은 특히 EU내 R&D 프로그램 및 기술로드맵에 대한 국내 참가자의 이해도 증진 및 국내 관련 R&D 및 기술로드맵에 대한 독일의 관심이 확대 되었다. 양국 간 기술기획협력 및 전문가 간 상호교류를 통해 로드맵 노하우공유 및 향후 양국 공동 R&D를 위한 전략협회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기술협력 분야에서 활동이 기존의 동반국가 행사와 달리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다. 총 11개 세미나 및 포럼, 공동연구, 공동프로젝트, MOU 체결 등 구체적 성과 도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독일 측 관련기관 참여를 통한 해외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 KOTEF-VDI,
- IZT간 MOU체결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독일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메쎄활용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해서 실질적으로 한독 간의 국제기술협력이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가 가져왔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 하노버 메쎄에서는 동반국가를 선정하여 그 국가의 국가홍보관 및 문화관을 설립 문화예술 그리고 기술협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양국 간의 관계자, 기관, 산업체 및 학계의 국제기술협력 파트너들은 보다 쉽게 독일파트너들과 협력을 할 수 있었으며 정부에서도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에 국제기술협력을 위해서 정부가 실행하는 일회적인 매치 메이킹 행사와는 다른 차원에서 문화적인 차이점을 저하시키면서 성공적으로 국제기술협력이 이루어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정부의 하노버 메쎄활용을 통한 국제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은 우리정부는 향후 제도적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국제기술협력을 해야 하는 국가들, 특히 문화적인 차이로 인접이 어려운 국가들과도 국제전시회를 통해서 동반국가를 선정 문화적인 이해를

높이면서 성공적으로 국제기술협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

본 논문의 학문적 기여는 최초로 국제기술협력 관점에서 협력의 장애요인이 되는 문화적 차이점을 줄이는 방안으로 독일정부의 메쎄 활용 방안을 사례분석하면서 그 성과를 살펴본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보다 깊이 있는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깊이 있는 메쎄를 통해 이루어진 국제기술협력 파트너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한다.

References

- [1] Kim, B.S.; Germany's trade exhibition in a Study of Industrial Policy - The German government supports the policy of international exhibition: Trade Association, 30, 5-25, 2005.
- [2] Kim, J.S.; Study on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Germany and Korea; Ministry of Korea Energy (MKE), 2004.
- [3] Kim, J.S.; Government support for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Germany, 2 +2 project, Ministry of Korea Energy (28) 2010.
- [4] Kim, J.S.;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EU and Korea; Ministry Industry and Energy (MKE), 2005.
- [5] Kim, J.S.: "EU's FP and EUREKA Study of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Korea Institute of Academic Technology, Volume 12 No. 2, pp. 736-745, 2011.
- [6] Kim, J.S.; Machinery, Motivation and Barriers in the field of joint investment research - focusing on companies in Korea and Germany -, Korea Institute of Academic Technology, Volume 12, Issue 3, pp. 1204-1212, 2011.
- [7] Deltatek Korea; Small Business Activation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03.
- [8] Lee, M.J.; Science and Technolog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Seoul,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002.
- [9] Oh, S.J.;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02.
- [10]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trategic R & D Analysis of the Government, Seoul,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09.

- [11]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Corporate status of the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2002.
- [12]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Industry White Paper, 2008
- [13] AUMA, Auslandsmesseprogram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Bundeslaender, Berlin, 2004
- [14] AUMA Bilanz, Die Messewirtschaft, 2002
- [15] Chiesa/Roletti. E., F&E-Kooperation und internationale Wettbewerbsfherigkeit, Berlin, 2004.
- [16] Deusches MesseForum; Dokumentation des 7. Deutschen Messe Forums, 2003 .
- [17] Heftrich, S., Technologie Management, Wiesbaden, 2000.
- [18] Hagenoom/Roijakkers/Van Krammenbur. H., Cooperative and Noncooperative R&D, Americal Economic Review 90, 2006.
- [19] Kim, B.S. Management der Dienstleistungsqualitaet im Messewesen, Berlin, 2003.
- [20] KISTEP; KISTEP 통계브리프, 2008.
- [21] Mehr asiatische Einkaufer mel deutschen Messen, in: AUMA-Compact, Nr. 16/06. 2003
- [22] Miotti/Sachwald, A., Cooperative R&D with Product Market Compet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1, 2003.
- [23] Müller, E., Internaitonale Kooeration, Wiebaden, 2004.
- [24] Prueser, S.; Die Messe mit Networking -Plattform, Wiesbaden, 2003
- [25] Ritter, E., Strategische Allianzen, Wiesbaden, 1998.
- [26] Scholl, J., Kooperation in Forschung und Entwicklung, 2007.
- [27] Smpson, E., Techniken im Trand, Berlin, 2003.
- [28] Tan, D./Goh, M./Hock, K./Chung, P.: AN Introspective Look at the Exhibition Industry in Singapore. 1999.

김진숙(Jin-Suk Kim)

[정회원]



- 1986년 2월 : 독일 Münster 대학교 경영학(Dipmom 석사)
- 1994년 9월 ~ 1997년 2월 : 독일 Trier 대학교 경영학 박사 (Dr. rer. pol.)
- 2000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관심분야>

국제기술협력, EU, 독일, 국제경영전략, 국제마케팅, R&D, 기술경영, 산업재마케팅 등